

# 한 소설 두 텍스트\*

- 이문열의 소설 『영웅시대』의 텍스트 비평 -

이 승 진\*\* | 원광대

## < 목 차 >

1. 서론
2. 텍스트 비평 및 역사·비평본 편집
3. 『영웅시대』의 역사·비평본 편집
  - 3.1. 생성사 및 판본
  - 3.2. 텍스트 대교
    - 3.2.1. 텍스트 구성의 변화
    - 3.2.2. 내용 변화
  - 3.3. 정본(원전) 텍스트 편집
  - 3.4. 상이점 기록부 (Apparat) 작성
  - 3.5. 주해서 작성
4. 결론

## 국문초록

텍스트 비평은 독자들에게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텍스트를 제공하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1019658)

\*\* 원광대학교 인문대학 유럽문화학부 교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현대문학의 텍스트 비평은 텍스트의 생성사와 변천사를 밝히고, 상이한 판본들 간의 대교 작업을 통해 판본들 간의 텍스트 상이점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연구결과를 작품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문열의 장편 소설 『영웅시대』 역시 서로 뚜렷이 구분되는 두 판본 텍스트를 갖고 있다. 이 소설은 원래 1982년부터 1984년까지 계간지 『세계의 문학』에 8회 연재되었으며, 연재 완료 3개월 후인 그해 10월 민음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그런데 이 단행본 판본은 연재판본과 동일하지 않다. 초판본에는 없던 방대한 분량의 <동영의 노트> 등이 추가되면서 총 6장으로 텍스트가 확장되며, 이 늘어난 분량은 원고지로는 약 900매에 달한다. 더욱이 <동영의 노트>로 인해 초판본에서부터 농후했던 텍스트의 사변성이 더욱 강화된다.

이밖에도 의미 있는 변화 중 하나가 안나타샤와 관련된 서술이다. 초판본에서 주인공 이동영의 연인 안나타샤(명례)는 숙청의 위기에 몰린 동영을 그의 소원대로 배를 구해 북한에서 떠나보낸다. 이것이 초판에서 안명례가 오랜 동안 이데올로기와 사랑의 애증으로 몽쳐있던 이동영과 결별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개정판에서는 안나타샤가 이동영을 떠나보낸 후 수상 보안대원들에게 이동영의 밀항을 고발한다. 이로써 개정 판본에서는 동영에 대한 안나타샤의 사랑이 순수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외에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 이 두 판본은 “같지만, 같지 않은” 소설이다. 그렇다면 독자들은 어떤 텍스트로 『영웅시대』를 읽어야 할까? 또 연구자들은 어떤 텍스트를 분석해야 하며 후일 이문열 전집이 출간된다면, 편집자들은 어느 판본을 『영웅시대』 텍스트로 선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텍스트의 차이를 독자들에게 알려야 하는가? 알린다면 어떤 방식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일까?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텍스트 비평적인 방법을 도입해 소설 『영웅시대』의 역사·비평본 편집을 시도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초판본을 기저본(base-edition)으로 설정해 초판본과 개정판 텍스트를 비교하고, 텍스트의 변천과정과 판본간의 상이점을 ‘상이

점 기록부 Apparat'로 제작하는 작업이 시도된다. 물론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영웅시대』 연구자들이나 독자들에게 작품 텍스트 뿐 아니라 텍스트가 생성·변형되는 과정과 그 차이점까지 정확히 연구된 '신뢰할 수 있는', '학술적' 텍스트를 제공하는데 있다.

■ 주제어: 이문열, 영웅시대, 역사·비평 편집, 상이점 기록부, 이데올로기

## 1. 서론

인문학, 그 중에서도 문학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이다. 텍스트를 중심으로 작가와 독자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문학적 소통은 시대와 장소를 뛰어 넘어 지속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독자들은 자신이 읽는 텍스트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관심이나 의문을 갖지 않는다. 심지어 문학비평가 같은 전문 연구자들조차도 그들이 분석하는 텍스트의 신뢰성에 대한 '텍스트 비평 textual criticism'적인 시각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텍스트 비평은 독자들에게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필사본에 의존했던 중세 문학의 경우 진위를 알 수 없는 복사 필사본들만이 존재하고 최초의 텍스트는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텍스트 비평은 복사본들의 텍스트 세척을 통해 오리지널 텍스트에 가장 근접한 텍스트(Archetypus)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는 달리 현대 문학의 경우는 작가가 공인한 작품 텍스트가 하나가 아닌 경우가 문제가 된다. 저자가 잦은 텍스트 수정작업을 하거나,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하면서 텍스트가 상이한 여러 판본을 남긴 작품들이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문학의 텍스트 비평은 텍스트의 생성사와 변천사를 밝히고, 판본들 간의 대교 작업을 통해 판본들 간의 텍스트 상이

점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연구결과를 작품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문열의 장편 소설 『영웅시대』 역시 서로 뚜렷이 구분되는 두 판본 텍스트를 갖고 있다. 이 소설은 원래 1982년부터 1984년까지 계간지 『세계의 문학』에 8회 연재되었다. 그리고 연재 완료 3개월 후인 그해 10월 민음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그런데 이 단행본 판본은 연재판본과 동일하지 않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우선 초판본에는 없던 방대한 분량의 <동영의 노트> 등이 추가되면서 총 6장으로 텍스트가 확장되며, 이 늘어난 분량은 원고지로는 약 900매에 달한다.<sup>1)</sup> 더욱이 <동영의 노트>로 인해 초판본에서부터 농후했던 텍스트의 사변성이 더욱 강화되며, 이 부분이 별도 편집을 통해<sup>2)</sup> 기존의 서사 텍스트와 구분되면서 단행본 개정 판본은 서사적 텍스트와 이론적(사변적) 텍스트라는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 이질적인 텍스트들의 조합이라는, 문학텍스트에서는 흔치 않는 구성을 갖게 된다.

이밖에도 의미 있는 변화 중 하나가 소설의 마지막 부분 안나타샤-서사의 변화이다. 초판본인 『세계문학』 판본에서 주인공 이동영의 연인 안나타샤(명례)는 숙청의 위기에 몰린 동영을 그의 소원대로 배를 구해 북한에서 떠나보낸다. 이것이 초판에서 안명례가 오랜 동안 이데올로기와 사랑의 애증으로 몽쳐졌던 이동영과 결별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민음사 판본에서는 안나타샤가 이동영을 떠나보낸 후 수상 보안대원들에게 이동영의 밀항을 고발하고, 스스로 이동영을 체포하러 나선다. 이를 통해 민음사 판본에서는 동영에 대한 안나타샤의 사랑이 그 순수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외에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 이 두 판본은 “같지만, 같지 않은” 소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텍스트로 『영웅시대』를 읽어야 할까? 또 연구자들은 어떤 텍스트를 분석해야 하며<sup>3)</sup>, 후일 이문열 전집이 출간된다면 어느

- 
- 1) “계간 세계의 문학에 2년간 연재된 이 소설은 당초 원고지 2,600장 분량이었으나 책을 만들면서 3,500장으로 늘렸다.” (경향신문, 1984년 11월 7일)
  - 2) 개정판에 추가된 <동영의 노트> 55쪽 (개정판 하권, 600-654쪽)은 편집상으로도 상단에 머리말처럼 횡선을 삼임 함으로써 이 <노트>가 소설의 다른 부분과 성격이 다른 텍스트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 3) 현재까지 『영웅시대』를 분석한 모든 연구서는 예외 없이 개정판인 민음사 단행본을 대상텍스트로 설정하고 있다.

판본을 『영웅시대』 텍스트로 선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텍스트의 차이를 독자들에게 알려야 하는가? 알린다면 어떤 방식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일까?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 텍스트 비평적인 방법을 도입해 소설 『영웅시대』의 역사·비평본 편집을 시도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초판본인 『세계의 문학』 연재본을 기저본(基底本)으로 설정해 초판본과 개정판 텍스트를 비교하고, 텍스트의 변천과정과 판본간의 상이점을 ‘상이점 기록부’로 제작하는 작업이 시도된다. 물론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영웅시대』 연구자들이나 독자들에게 작품 텍스트 뿐 아니라 텍스트가 생성·변형되는 과정과 그 차이점까지 정확히 연구된 ‘신뢰할 수 있는’, ‘학술적’ 텍스트를 제공하는데 있다.

2013년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으로 가능해진 이 연구는 『영웅시대』 전체 텍스트에 대한 역사·비평본 편집을 시도했으며, 그 결과 - 특히 상세한 ‘상이점 기록부 - ’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탑재될 예정이다. 하지만 결과보고서의 성격을 갖는 본 논문에서는 연구결과의 전모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역사·비평본 편집의 일반원칙에 대한 소개와 『영웅시대』 역사·비평 편집방식 및 각 항목의 예가 제시될 것이다.

## 2. 텍스트 비평 및 역사·비평본 편집의 일반 원칙

일찍이 문학을 과학적인 학문으로 정립한 유럽<sup>4)</sup>에서는 텍스트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기초학문인 서지학 Bibliography(영미권) 또는 편집문헌학 Editionsphilologie(독일어권)이 오랜 학문적 역사를 지속하면서 발달해 왔다. 서지학(편집문헌학)은 텍스트를 “정체적인 현상이 아니라 역동적인 현상으로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진행 중인 과정”<sup>5)</sup>으로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4) 그 좋은 예가 문학Literatur에 과학(또는 학문)이라는 단어wissenschaft를 합성해 Literaturwissenschaft (문학학/문예학)라는 과학적인 문학연구방법을 정립한 독일이다. 독일의 경우 <문학학 입문> 강좌는 대부분 학사과정 첫 학기에 필수과목으로 개설되는데, “텍스트 비평”은 문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그 첫 출발작업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5) Gerhard Seidel, *Bertolt Brecht. Arbeitsweise und Edition*. Stuttgart, 1977,

출발한다. 텍스트를 작가에 의한 최초 집필과정에서 시작해 초판 출간 및 중판, 개정판으로 이어지는 출간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변모해가는 과정 중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텍스트 변형·생성 과정에 영향을 주는 주체로 서지학(편집문헌학)은 작가 이외에도 편집자, 검열, 식자공, 교정담당자 등에 주목한다.

서구의 서지학(편집문헌학)은 텍스트 변화(훼손)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자 기법인 “텍스트 비평 textual criticism/ Textkritik”을 오랫동안 발전시켜오고 있다. 텍스트 비평이 추구하는 것은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텍스트 an authentic text”의 확립이며, 궁극적으로는 학술적(과학적) 출판형태인 역사·비평본 historical-critical edition/ historisch-kritische Ausgabe의 출간이다. 여기서 ‘사적 historisch’이란 곧 한 작품이 생성, 전승되는 과정 Genealogie을 추적하는 것이며 ‘비판적 kritisch’이란 이 과정에서 텍스트가 변모된 과정을 추적하고, 판본간 텍스트 상이점을 밝히며, 오리지널 텍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남아 있는 판본들의 훼손, 오염된 부분을 판독, 교정하여 작가가 원래 의도한 또는 그 의도에 가장 근접한 텍스트를 복원 또는 재구성해내는 작업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진행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sup>6)</sup>

역사·비평본 출간을 목표로 하는 역사·비평본 편집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면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 1) 텍스트의 생성사 및 전승사의 추적 및 재구성
- 2) 필사본, 타이핑본, 신문, 잡지, 서적 등 해당 텍스트가 수록되어 전달되어온 모든 텍스트 전달매체 textcarrier/ Textträger의 추적
- 3) 텍스트 전달매체의 비판적 검증을 통한 모든 판본의 생성 · 전달관계를 계보(족보 Stemma)로 작성
- 4) 여러 이본(異本)들의 텍스트를 대교(對校)해 텍스트상이점 variant들을 추적·수집. 고문헌의 경우 텍스트 훼손, 오염 등에 대한 검증 및 수정 ·

---

p. 40.

6) Dieter Gutzen u.a., Einführung in die neuere deutsche Literaturwissenschaft. 6., neugefasste Aufl. Berlin, 1976, pp 1참조/ 이승진, 『문학텍스트의 ‘사적·비판적 편집’ - 브레히트의 시를 통해 살펴 본 그 필요성과 방법론』,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4집(1998), 223-258쪽, 224쪽 참조.

복원 (에멘다치오 Emendatio)

5) 텍스트 편집 시 기준이 될 “기저본(기준판본)텍스트 base text” 선정 (엑사미나치오 Examinatio). 이 경우 크게 두 가지 원칙, 즉 “최종본 원칙”과 “초판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우선 “최종본 원칙”을 적용하면, 작가가 최종적으로 수정한 텍스트를 기준판본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텍스트의 질적 수준은 가장 높지만 초판본 텍스트의 신선하면서도 투박한 특성들이 사라지기 쉽다. 반대로 “초판본 원칙”에 의해 초판본을 기저본 텍스트로 선정한다면 작가의 발전단계를 추적하기에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작품의 경우 작품의 완성도가 낮은 상태로 출간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역사·비평본이 주로 전문 연구가들의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학술적 출판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초판본 원칙”이 대체로 자리 잡고 있으며, 초판본 이후의 텍스트 변화를 기록·제공하는 “텍스트 상이점 서술부 Apparat”를 통해 텍스트 변천사가 제시되고 있다.

6) 기저본에 근거해 역사·비평본의 본문텍스트가 될 정본(원전) 텍스트 편집. 정본 텍스트는 기저본을 기준텍스트로 하되, 다음과 같은 수정 또는 텍스트 세척이 이루어진다.

- 오·탈자 수정
- 맞춤법 표기의 경우 대부분 편집 시의 표준(현대)어법에 맞게 수정
- 외래어, 한자 병기 등의 문제 통일
- 텍스트 상이점 서술을 위해 행 번호 추가

7) 정본(원전)텍스트와 여러 이본(異本)들의 텍스트를 대교(對校)해 텍스트 상이점들을 추적·수집해 “텍스트 상이점 기록표 Apparat” 작성.

8)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지명, 인명, 역사적 사건, 전기적 사건, 수사학적 표현, 역사적 사실, 전문용어 등에 대한 주해서 작성.

9) 텍스트 상이점이 방대하거나 주해서 분량이 많을 경우 이 둘을 묶어 별권으로 발간.<sup>7)</sup>

---

7) 카프카 전집 『Franz Kafka, Schriften, Tagebücher, Briefe. Kritische Asgab in 15 Bänden, hrsg. v. Jürgen Born u.a.. Frankfurt a. M., 2. Aufl. 2002』가 이에 해당한다.

### 3. 『영웅시대』의 역사·비평본 편집

#### 3.1. 생성사 및 판본

『영웅시대』와 관련된 판본으로는 다음과 같은 3 판본이 확인된다.

##### 3.1.1. 초판본: 『세계의 문학』 연재 판본

이 소설은 원래 1982년부터 1984년까지 계간지 『세계의 문학』에 8회 연재되었다. 분량은 총 506쪽에 달하며 분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 <분재 제 1회>: 26집(1982년 가을), 192 - 285쪽 (총 94쪽)
- <분재 제 2회>: 27집(1982년 겨울), 335 - 369쪽 (총 35쪽)
- <분재 제 3회>: 28집(1983년 봄), 373 - 441쪽 (총 69쪽)
- <분재 제 4회>: 29집(1983년 여름), 301 - 343쪽 (총 43쪽)
- <분재 제 5회>: 30집(1983년 가을), 458 - 501쪽 (총 43쪽)
- <분재 제 6회>: 31집(1983년 겨울), 369 - 420쪽 (총 52쪽)
- <분재 제 7회>: 32집(1984년 봄), 454 - 526쪽 (총 73쪽)
- <분재 제 8회>: 33집(1984년 여름), 354 - 450쪽 (총 97쪽)

##### 3.1.2. 개정판: 민음사 판본

연재 완료 3개월 후인 1984년 10월 1일 민음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상·하 두 권으로 인쇄되었으며 총 666쪽에 달한다. 작가가 당시 신문에 밝힌 것에 따르면 민음사 판본은 원래 원고지 2,600여 매 정도였던 연재 소설(초판본)을 원고지 3,500여 매로 확장한 개정·증보판이다.

이 개정판은 23쇄까지 펴낸 후 1997년 판형을 달리해 페이지 수를 731쪽으로 변형시킨 2판 1쇄를 펴낸 후 2012년 인쇄된 4쇄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2판은 비록 판형은 다르지만, 내용은 1판과 동일해 독립적인 판본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 3.1.3. 중앙일보사 판본

1987년 12월 1일 중앙일보는 <오늘의 역사, 오늘의 문학> 시리즈 19-20권으로 『영웅시대 1, 2』 두 권을 펴냈다. 텍스트 분량은 총 593쪽이며, 텍스트 이외에 정운영이 쓴 『작품과 그 시대』와 김윤식이 쓴 『길 잘못된 속인의 사상 비판』이 작품해설로 첨부되어 있다. 하지만 이 판본 역시 독자적 판본으로는 간주될 수 없다. 민음사 단행본을 새롭게 조판해 판형과 수록 분량만 다를 뿐 민음사 판본과 동일한 내용의 텍스트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 3.2. 텍스트 대교(對校)

텍스트 대교작업은 한 작품의 모든 판본을 서로 비교해 텍스트의 상이점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텍스트 상이점 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웅시대』의 경우 비교대상 판본은 둘 (초판 『세계의 문학』 연재본과 개정판 민음사 판본) 밖에 없지만 텍스트 상이도는 매우 높다.

### 3.2.1. 텍스트 구성

초판본 『영웅시대』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3개월 후 발간된 개정판에서 텍스트는 6장의 구성으로 확대된다. 특히 텍스트 변화가 심한 4, 5, 6 장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 판	1장	2장	3장	4장	5장	
	7부	7부	8부	1-7부	1-5부	6부 + 에필로그
개 정 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부	7부	8부	1-8부	1-7부	1부 + 「동영의 노트」 (2-5부) + <6부> + 에필로그

- 1) 표가 보여주듯이 개정판에서는 전체 구성이 6장으로 확장되며

2) 6장은 초판본 5장 6부를 6장 1부로 옮겨오고, 그 이후 새로 작성된 텍스트들인 방대한 『동영의 노트』를 4부에 걸쳐 수록한 후, 역시 새로 집필된 6부와 초판본 텍스트를 수정한 에필로그로 작품을 마무리 한다.

3) 이밖에도 초판 5장 1부 중 동영이 원산 농대로 발령 나기까지의 과정을 개정판에서는 별도의 장으로 분리해 내용을 확장시킨 후 이 부분을 4장 7부로 추가한다,

4) 또한 개정판에서도 남아있는 초판 5장의 첫 5부(1-5부)도 개정판에서는 텍스트가 확장되어 7부로 확대된다.

### 3.2.2. 내용 변화

앞의 ‘텍스트 구성 비교표’가 보여주듯이 두 판본의 차이는 소설 후반부로 갈수록 더 심화되며, 이에 따라 작품 서사 역시 의미 있는 수정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를 서사의 결말, 인물설정 등의 측면에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서사의 상이한 결말: ‘초판 5장 5부, 6부’와 ‘개정판 5장 5-7부+6장’ 비교

	초판	개정판	비교
5장 5부	<p>&lt;정인&gt; 정인(동영의 처)은 시모의 꿈을 꾀다. 이어지는 회상. 위암으로 죽음을 앞둔 시모는 “예수 믿는 거 꼭 잊지 마래이. 지금 세상 보이 그 귀신이 제일로 힘있는 거 같다”는 유언을 남기며, 정인은 유언을 따라 조</p>	<p>5장 5부</p> <p>&lt;정인&gt; 정인은 시모 치료비를 구하기 위해 동희에게 빚 상환을 독촉하다 오히려 겁탈의 위기에 처한다. 가까스로 그의 눈을 찌르고 위기를 벗어난다. 감옥에서 만난 김시철의 애인 한영숙에 대해 회상한다. (민음사, 하권, 547-562쪽)</p>	<p>동희 에피소드는 새롭게 추가된 텍스트이며, 한영숙 회상은 초판 5장 1부에 서 위치 변경된다.</p>

	<p>상 신주를 모두 조매·퀵사시킨다. 그 후 정식으로 교회에 입교해 세례를 받는다. &lt;불합리하기에 믿노라. 더럽기에 추하기에 사랑하노라&gt; (분재 8회, 427-436쪽)</p> <p>※ 개정판에서는 텍스트 확장을 거쳐 5장 7부와 6장 6부로 분리된다.)</p>	<p>5 장 6부</p>	<p>&lt;동영&gt; 안명례 평양에 다녀와 박영창이 아직 무사하다고 안도하며 동영과의 결혼계획을 알린다. 둘은 동거한다. 불안함을 느낀 명례, 다시 평양을 다녀온 후 박영창 등의 숙청사실을 알리면서, 동영에게 박영창을 먼저 밀고하고 숙청을 피할 것을 권유한다. 동영은 이 제안을 거부한다. (562-572)</p>	<p>앞부분은 초판본 5장 4부 끝부분을 확장해 옮겨온 것이며, 안명례와의 동거 부분이 확장된다.</p>
<p>5장 6부</p>	<p>&lt;동영&gt; 동영은 일본으로 밀항할 배를 기다린다. 그의 회상을 통해 안명례와의 동거, 평양을 방문했던 명례가 박영창 등 남로당계열의 숙청사실을 알고 동영에게 박영창을 먼저 밀고하고 숙청을 피할 것을 권유한다. 동영은 이를 거부한다. 인민들의 실상을 알기 위해 협동농장을 방문하나 열병을 앓게되면서 실신한다. 깨어난 동영은 명례에게 자신을 제 3국인 일본으로 탈</p>	<p>5 장 7부</p>	<p>&lt;정인&gt; 시모의 죽기 전 1주일에 대한 회상. “예수를 믿으라”는 유언, 기독교식 장례, 조상신주의 조매/퀵사, 입교 정인은 자신이 기독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동영과 그로 대변되는 이데올로기와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이러한 정인의 내적 갈등이 상세히 서술된다. (하권, 572-582)</p>	<p>초판은 입교와 세례 과정을 간단히 서술하나 개정판은 이 부분을 확대해 입교까지를 5장 7부/세례 과정을 6장 6부에 서술한다.</p>

	<p>주시켜줄 것을 요청하며, 명례는 동영의 소원을 받아들여 밀항할 배를 주선한다. 명례와의 이별. 막상 배가 도착하자 동영은 탈출을 거부하고, 이 땅에 남는다. 동영의 죽음이 암시된다. (분재 8회 436-449 쪽)</p>	<p>6장 1부</p>	<p>&lt;동영&gt; 배를 기다리며 동영은 그가 인민들에게 돌아 가기 위해 연변평야의 농촌을 방문하나, 농민들의 실상과 그들의 관심사를 알게 되면서 자신이 가져왔던 농민이라는 개념이 오직 추상적인 관념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절망한 것에 대해 회상한다. 동영은 “만주에서 유입된 이름 모를 열병”으로 실신하며, 깨어 난 후 안명례에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제 3국인 일본으로 탈주시켜줄 것을 요청하며, 명례는 동영의 탈주계획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나 결국 그를 보내기로 결심한다. 명례는 이별장면에서 수상쩍은 태도를 보인다. 배가 오자 동영은 탈출을 거부하고, 북한에 남는다. 동영을 남겨놓고 떠난 배는 곧 인민군 무장선에 나포되며, 그 안에는 안 명례가 타고 있다. 그녀가 밀고했던 것이다. 명례는 동영이 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린다. (하권,</p>	<p>농촌 방문에서 토지 개혁 등에 대한 농민들의 바람을 확인한 후의 동영의 회의, 절망에 대한 텍스트가 대폭 확장된다. 아울러 동영의 밀항과 그와의 이별에 대한 안 나 타샤의 태도가 전혀 상반되게 그려진다. 전체적으로 텍스트 분량이 두 배 이상 확장 된다.</p>
--	--	------------------	--	--

			583-599)	
개정판 6장 2-5 부	<p>동영의 노트 (2-4부/ + 5부 “아들에게”) 모두 새롭게 추가된 텍스트로서 소설의 사변적 성격이 더욱 확대 된다</p>			
6장 6부	<p>1953년 9월. 정인의 세례식. 6개월 전 시모가 세상을 떠난 후 정인이 세례를 받기까지의 내적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이 세례를 통해 정리되는 과정이 서술된다. 초판과 달리 본 서사가 정인 파트로 종료되며, 역시 &lt;불합리하기에 믿노라. 더럽기에 추하기에 사랑하노라&gt;라는 초판 5장 5부의 마지막 문장이 이곳으로 옮겨 오면서 작품의 본 서사를 마무리한다.</p>			
에 필 로 그	<p>종전 몇 년 후. 철이가 친구들로부터 빨갱이 자식이라고 놀림 받지만, 철이는 아버지를 영웅이라 옹호한다. 그로부터 30년, 그 아이는 자라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gt;라는 문장으로 작품이 종료된다.</p>	에 필 로 그	<p>&lt;그로부터 30년, 그 아이는 자라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gt;라는 문장이 삭제된다.</p>	<p>초판의 마지막 문장의 삭제로 자전적 성격이 탈색된다.</p>

작품 서사를 마무리하는 후반부에서 발생한 텍스트 수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작품 서사를 동영과 정인 파트로 구분해 교차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초판과 달리 정인파트로 서사가 종결된다.
- 2) 초판본에서는 동영 파트로 서사가 종결되면서, 비록 이상주의자이고 회의주의자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이데올로기와 이 민족, 이 땅을 떠나지

않으려는 동영의 마지막 모습과 이를 존중하는 안명례의 사랑이 강조되었다면,

3) 개정판에서는 원고지 60매 정도로 새로 집필된 정인 파트가 정인의 기독교 세례과정과 그의 갈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정인의 갈등이 동영의 갈등 못지않게 강화된다. 정인이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곧 그녀가 남편이 택했던 이데올로기를 등지는 것일 뿐 아니라 중국에는 남편인 동영과의 결별까지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초판본에서는 한 문장으로 간단히 처리했던 정인의 세례과정이 원고지 60매 분량으로 확대 서술되고, <불합리하기에 믿노라. 더럽기에 추하기에 사랑하노라>라는 문장으로 장편 서사를 끝내면서 초판본에서와 달리 서사 결말의 중심이 정인으로, 다시 그가 받아들인 종교로 옮겨간다.

4) 초판에는 없던 <동영의 노트>가 원고지 약 270매 분량으로 추가되면서 작품의 사변성이 강화된다. 이 부분은 마치 소설의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작가가 자신이 전개한 작품 서사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을 시도하는 인상을 준다.

## ② 안 나타샤(명례)의 캐릭터 변화

개정판 서사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안나타샤이다. 동영 서사의 한 축을 이루는 안 나타샤(명례)의 캐릭터가 완전히 새롭게 설정된 것이다. 안 명례는 1936년/1937년 경 (“소화 11년 또는 12년”, 초판본, 분제 8회, 404쪽) 사리원에서 브나로드의 깃발아래 그곳을 찾은 “그 수려하던 나르드시키”(초판본, 분제 8회, 421쪽) 동영을 처음 본 후 17년이란 세월을 오직 그에게 도달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왔던 여인이다. 그녀에게 동영은 “상대가 내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계산함이 없이 [...] 몸을 맡기는 유일한 남자”(초판본, 분제 8회, 373쪽)였으며, 그러기에 동영이 점점 더 회의주의자로 변모해가고, 당의 신임을 잃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그를 옹호하고, 마침내는 그에게 일본으로의 밀항을 주선한다. 적어도 초판의 안명례는 동영 앞에서만은 이데올로기를 접하기 이전에 가졌던 동경 또는 사랑이라는 순수한 감정을 상실하지 않는다.<sup>8)</sup> 그런 면에서 명례는 『영웅시대』에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북쪽 권력층<sup>9)</sup>의 인물 중에서 매우 예외적인 인물

로 그려진다.

하지만 개정판의 명례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인다. 그녀는 동영이 떠나려 하자 그를 보내면서, 한 편으로는 그의 밀항을 밀고한다.

[동영을 태우기로 했던]그 불행한 탈출선은 미리 부근에 대기하고 있던 두 척의 작은 무장선(武裝船)에 의해 앞뒤를 차단당해 있으며 그 중 한 척의 뱃머리에는 정규의 복장을 한 안명례가 서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볼에는 동영이 탈출선 안에 없음을 확인한 때부터 한 줄기 눈물이 타내리고 있음을 동영이 알 리는 더욱 없었다. (개정판 하권, 599쪽)

이러한 수정을 통해 개정판의 안나타샤에게는 더 이상 순수의 공간이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영악한 계산적인 여인으로서의 캐릭터만 남게 된다.

### ③ 이분법적인 서술

초판 텍스트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나 그 이념을 신봉하는 이데올로그들에 대해 - 비록 그들이 패배자임에는 분명하지만 - 그들의 선택과 역사적 공간을 인정하는 유연한 접근을 보인다. 하지만 개정판에서는 작가가

- 8) 정주아는 “안나타샤는 입지전적으로 권력의 핵심부까지 오른 여성이며, 이동영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위협해지자 최후의 순간에 그를 버린다. 자기 욕망의 실현에 대한 집요함에 있어서 그녀는 이동영을 압도하고 있으며, 그 욕망은 이동영이 풀어내는 정치적 사변을 무색하게 만든다.”라면서 그녀를 동영 조모의 신화가 북한에서 재현된 사례로 간주한다. 하지만 이러한 진단은 개정판 텍스트에 근거해서만 성립될 뿐, 초판본 텍스트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정주아, 이념적 진정성의 시대와 원죄의식의 내면 -1980년대 이문열 소설의 존재방식과 텍스트의 이중성, 민족문학사연구, 54집(2014), 7-33쪽, 29쪽)

또한 권유리아 역시 개정판 텍스트에 근거해 “동영이 밀항선에서 내린 이유를 이문열은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는다. 밀항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 한편 안나타샤의 정보누출로 내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도 가능하다”(권유리아, 이문열 소설과 이데올로기. 국학자료원, 2009, 89쪽)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 역시 초판 텍스트에는 합당하지 않는 서술이다.

- 9) 『영웅시대』에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택한 이데올로그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대부분 남로당 계열의 인물들일 뿐 갑산파나 연안파 등 만주나 소련 등지에서 북으로 돌아온 공산주의자들은 서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취했던 초판본의 상대적 유연성이 사라지고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이분법적인 상태로 그려진다. 즉 “우익 혹은 좌익이라는 선명한 판별 표지가 모든 가치재단의 준거로 작용”<sup>10)</sup>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텍스트 수정의 한 예가 1장에서 김(시)철과 동영이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초판본	개정판본
<p>『그렇다면 아직도 자네 가슴에는 불타는 이념이 간직되어 있는가? 아직도 혁명과 유혈에 대한 열정이 남아 있던 말인가?』 『묻는 자네는?』 김철이 여전히 웃음을 띠며 물었다. 그 말에 동영은 더욱 견잡을 수 없는 기분이 되어 서슴없이 대답했다. 『마비 - 까닭모를 공포와 혼란 .....』 그때였다. 김철의 얼굴이 돌연 굳어지며 동영의 말을 가로 막았다. 『그만』 그리고는 자기 앞의 잔을 급히 비운 뒤 소리나게 탁자 위에 엎으면서 말했다. 『곤란한 정치위원 동무로군. 오늘밤 본 영장의 행위에 과오가 있으면 기꺼이 비판을 받겠소. 하지만 그럴 의사가 아니라면 술자리는 이쯤에서 끝내도록.』</p>	<p>『그렇다면 묻겠네. 아직도 자네의 가슴에는 찬연한 이념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가? 아직도 혁명과 유혈에 대한 열정과 희망이 살아있던 말인가?』 어찌면 이 물음은 나 자신에게 던지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 동영은 그런 느낌까지 들며 단숨에 말했다.</p> <p>『묻는 자네는?』 김철이 애써 웃음을 잃지 않은채 되물었다. 오히려 동영을 살피는 듯한데까지 있었다. 술 탓인지, 동영은 더욱 견잡을 수 없는 기분이 되어 서슴없이 대답했다. 『<u>모르겠네, 아는 것은 다만 마비와도 같은 둔감, 까닭모를 공포와 혼란, 그리고 끝모를 무력감 ....</u>』 자신에게까지 막연하던 것이 갑작스레 명료해지는데 놀라며 동영이 하나하나 자신 속의 마음속을 그려 갈 때였다 김철의 얼굴이 문득 굳어지며 동영의 말을 가로막았다.</p> <p>『그만 해』 나지막하나 명령조로 그렇게 말한 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김철이 문쪽으로 뚜벅 뚜벅 소리내어 걸으며 약간 목소리를 높였다. 『곤란한 정치위원 동무로군. 오늘밤 영장의 언동에 과오가 있다면 기꺼이 비판을 받겠소. 하지만 스스로 회의분자임을 고백하거나 패배주의에</p>

10) 한형구, 이문열의 『영웅시대』의 생성과 수용의 의미망, 문학사상, 1989년 9월호, 114-121쪽, 120쪽.



<p>그런 그의 목소리와 표정이 얼마나 삼엄한지 동영은 술이 확 깨는 기분이었다. (분재, 1회, 220쪽)</p>	<p>동조를 구하고 싶어서이라면 흥미가 없오. 술자리는 이쯤에서 끝내도록,  <u>그제서야 동영도 창문 밖에서 가벼운 인기척을 느끼고 아울러 김철의 갑작스런 변화가 그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u>                  하지만 그의 굳은 표정에는 무언가 아픈 곳을 건들린 자의 노여움도 분명 깃들어 있었다. (상권, 31쪽)</p>
--	---

개정판의 텍스트 변화에는 작가의 두 가지 의도가 읽혀진다. 우선 이상주의자로서의 동영의 문제점, 즉 그가 초판보다 훨씬 더 일찍부터 - 중공군과 같이 남하하는 1950년 10-11월에 이미 - 이데올로기에 대해 회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서술된다. 즉 동영에게서 나타나는 회의분자 또는 패배주의의 흔적이 개정판 보다 일찍이, 명료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 부분 개정판 텍스트에서는 - 서사와 무관한 - 문장 하나가 추가된 것이 눈길을 끈다. 그것은 동영의 의견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태도를 보이던 김(시)철의 급작스런 태도 변화의 원인 중 하나가 그들을 감시하는 외부의 눈과 귀 때문이라는 암시이다. 이것은 곧 그 보이지 않는 귀와 눈이 전장에까지 측수를 내린 북의 당대 권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개정판 텍스트가 좌파 진영에 대한 비판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이해가능하다.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텍스트 수정은 정인과 시모가 동영의 옛 친구인 빨치산 강현석의 애인 필녀의 출산을 돕다 빨치산 토벌대에게 발각되는 4장 7부에서도 이루어진다.

초판본	개정판본
<p>대문개로 나서는 그들을 맞은 것은 [토벌대가 비추는] 수십 개의 플래쉬 불빛이었다. 상대도 긴장한 탓인지 말이 없어 어둠과 고요 속에 번쩍이는</p>	<p>대문개로 나서는 그들을 맞은 것은 [토벌대가 비추는] 수십 개의 플래쉬 불빛이었다. 상대도 긴장한 탓인지 말이 없어 어둠과 고요 속에 번쩍이는</p>

그 불빛들은 그대로 수많은 <u>악마의 눈</u> 동자 같았다. (초판 7회 분재, 522쪽)	그 불빛들은 그대로 수많은 <u>맹수의 눈</u> 동자 같았다. (하권 464쪽)
--	---

이와 같은 개정판에서 이루어진 수정은 작가가 이데올로기를 보다 더 강하게 부정하려 했으면서도, 실상은 이데올로기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개정판에서는 오히려 초판 보다 더 이데올로기 종속적인 형상화가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이분법적이고 도식적인 서술을 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개정판에서의 이와 같은 텍스트 수정은 안 나타샤의 캐릭터 변화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즉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도가 전제되는 개정판 서사에서 작가는 안나타샤에게 초판본에서 부여했던 순수성과 인간성을 더 이상 부여할 수 없었던 것이다.

#### ④ <동영의 노트> 추가

개정판인 민음사 판본에는 초판본에는 없던 『동영의 노트』가 추가된다. 무려 원고지 270매 정도에 해당하는 방대한 사변적인 글에서 동영은 최후를 앞둔 시점에서 자신이 살아온 20세기 전반기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고, 자신이 왜 이 역사적 공간에서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택했는지에 대해 서술하면서 이데올로그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린다.

나는 이 노트에서 내가 빠져들게 된 이 비극을 객관화함으로써 비록 그것이 정연하고 정확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시대의 총체적인 모습을 개괄해 보려고 했으며, 또한 가능하다면 그 대안과 함께 자신의 합리화 또는 빠져 있는 모순에서의 탈주까지 모색하려 했다. 따라서 내가 먼저 힘들여 분석하고 비판하려 했던 것은 우리 근대사에서 어느 정도 보편화된 이데올로기적 사회상황과 의식주체의 주관적 정황 및 수용태도, 그리고 내가 몸담게 된 이 체제의 이상과 거기에 대응된 현실이었다. (개정판, 하권, 703-04쪽)

이러한 의도로 개정판에서 새로이 추가된 <노트>는 4부로 구성되며, 이

4부가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글로도 읽힐 수 있다. 우선 첫 노트인 2부에서 동영은 20세기에 들어와 저마다 진리라고 외치는 수많은 종교와 이데올로기가 한반도에 넘쳐나 이 땅에 “갑작스런 진리의 폭발”(개정판, 하권, 600쪽)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숙고하며, 3부에서는 “무엇이 이땅의 지식인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출신을 부정하고 약속된 것이나 다름없는 혜택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이 길에 뛰어들도록 하였으며, 어떤 구호가 프롤레타리아의 개념조차 분명치 못한 인민대중들을 충동하여 그 뒤를 따르게 하였을까.”(개정판, 676쪽)라는 문제에 천착한다. 동영은 이어지는 4부에서 한국 전쟁 한국전쟁을 “남북전쟁”(개정판, 694쪽)으로 이해하면서,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한다.

마지막 5부는 “아들에게”라는 편지형식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동영은 이 편지에서도 자신이 실패한 영웅임을 자인하면서 아들에게 모든 이데올로기에 대한 지움, 부정, 진정(鎭定)의 자세를 요구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휴머니즘과 민족주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사색을 끝낸다.

아비는 감히 너희에게 말하리니,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다만 지움이며, 부정이며, 진정의 논리다. [...] 너희는 먼저 지워라, 부정해라, 진정시켜라. [...] 모든 이데올로기에 거역하고, 그 찬란한 약속 뒤에 감추어진 독이 빨과 날카로운 발톱을 경계하여라. [...] 그리하여 그 마지막 중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휴머니즘이다. [...] 아무리 지우고 지워도 지울 수 없는 것은 우리 몸을 도는 피이며, 아무리 거역하고 거부하려 해도 끝내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집단은 민족이다. [...] 아버지는 이 대안을 감히 너의 시대의 출발점으로 암시한다. [...] 그래도 한 시대의 뼈아픈 체험의 결정임을 잊지 말아라. [...] (개정판, 하권, 711-715쪽)

『영웅시대』는 그 초판본에서도 매우 사변적인 텍스트가 많이 수록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동영이 동경 유학을 다녀올 정도의 지식인 출신의 아나키스트에서 출발해 마르크시스트로 전향하고, 또 남포당 계열로 소외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선택과 이데올로기에 대해 자문하고 이에 답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지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옛 스승이자 동지들인 박영창, 박영규 등과, 원산 농대의 제자 등과 벌이는 논쟁이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초판부터 농후했던 이 소설의 사변성은 개정판에서는 논문을 연

상시키는 <동영의 노트>로 인해 그 차원이 다를 정도로 강화된다. 그리로 이러한 논리적 서술이 결국에는 전지적 시점의 강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독자의 유연한 글 읽기, 즉 수용적 측면에서 저자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글 읽기를 저해하고 저자의 견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3.3. 정본(원전) 텍스트 편집

텍스트 대교작업이 마무리 되면 (또는 동시에), 기저본에 근거해 역사·비평본의 본문텍스트가 될 정본(원전) 텍스트를 편집한다. 본 연구는 초판본인 『세계의 문학』 연재본을 기저본으로 삼는다. 그 이유는 초판본에 근거해 ‘텍스트 상이점’을 기록해야, 독자나 연구자들이 텍스트의 변천을 사적(史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본(원본) 텍스트의 편집 작업은 기저본에서 발견되는 오·탈자 수정과 편집 당시의 표준(현대) 맞춤법에 맞게 텍스트 수정, 외래어, 한자 병기 등의 문제 통일 등에 국한해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 밖에 텍스트 상이점 서술을 위해 행 번호가 추가된다.

기저본에 근거해 위에 소개한 편집작업을 거쳐 작성된 정본(원전) 텍스트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내게 있어서 정상적인 의미의 젊음은 그때 자네들과 헤어진 때가
마지막이었어. 그 뒤의 8년은, 믿지 않겠지만 한바탕의 어지럽고
사나운 꿈과 같았네.”
무언가가 있다. 동영은 다시 그렇게 느끼면서도 먼저 그의 물음에
충실하게 대답했다. 그가 묻고 있는 인물의 비극적인 최후가 주는 5
감동 때문이었다.
“박영규를 말하는군. 그는 상건보다 먼저 우리를 떠났네. 흑색운동

으로 돌아간 거지. 그 뒤 그는 조선 무정부주의자 총연맹(46년 경	
남 안의에서 결성)을 거쳐 독립노동당(최초의 국내 아나키스트 정	
당)까지 갔다가 48년에 불쑥 우리 쪽으로 넘어왔네. 낡고 부패한 세	10
계가 돌연 솟아오르도록 할 마술은 없다 (진독수의 아나키즘 비평	
의 한 구절)는 걸 새삼 깨달았다고 했지만 아마는 자기 당에 느낀	
환멸 때문이었던 것 같네. 그 무렵의 북새통 속에 사실 합법적인 아나	
키스트 정당이란 게 어떤 것이었겠나?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당한	
것 같아 .....	15

기저본 텍스트에서는 첫 분재분의 219쪽에 해당하는 이 정본(원전) 텍스트는 기저본과 다음 같은 점에서 차이가 난다.

- ① 2016년 통용되는 한글 맞춤법에 의해 기저본의 12행의 “귀절”이 “구절”로 수정되었으며
- ② 기저본에 있던 한자 (예 黑色運動)는 모두 삭제되었으며
- ③ 문장부호 『』은 “ ”로 대체, -----는 삭제되었다.
- ④ 또한 <상이점 기록부> 작성을 위해 행 번호가 추가되었다.

### 3.4. 상이점 기록부 (Apparat) 작성

초판 텍스트를 기저본으로 역사·비평본의 본문에 해당하는 원전(정본) 텍스트가 완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그 전 단계에서 조사했던 판본간의 상이점을 기록해 ‘상이점 기록부’를 작성한다. 상이점 서술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5단계 방식 <① 쪽, 행 번호 + ② 텍스트 + ③ 램마 부호> (이본과의 경계선을 표시) + ④ 이본의 상이한 텍스트 + ⑤ 해당되는 이본11)을 따

11) 『영웅시대』는 이본이 개정판 하나뿐이기 때문에 ‘상이점 기록부’에서 이본 표시는 불필요하다.

른다. 또한 상이점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표기방식을 택한다.

- ① 텍스트 생략 : [카나다]  
예) 217쪽 31-32 모든 이념적인 증오 ] [모든] 이념적인 증오
- ② 삽입 추가: [ 가나다 ]  
예) 192쪽 29행 하늘과 혼란 ] 하늘과 [ 전쟁의 ] 혼란
- ③ 삭제하고 추가: [카나다]→ [ 마바사 ]  
206쪽 22행 군관에게서는 흔히 발견할 수 없는 ] 군관에게서 [는  
흔히 발견할 수 없는] → [ 느껴지는 선입견에는 어울리지 않는 ]
- ④ 자구 수정: 가<<나>>다  
192쪽 20행 두텁게 ] 두<<꿍>>게

이러한 원칙에 의해 위 원전텍스트의 상이점 기록부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 219쪽 1행            의미의 ] [~~의미의~~]
- 219쪽 1-2행        헤어진 때가 마지막이었어. ] 함께이던 때였어.
- 219쪽 3행           꿈과 같았네. ] 꿈<<만>> 같[~~았~~]네. [ 특히 이렇게  
자네와 마주앉게 되고 보니 더욱 ]

위의 표시는 1행의 “의미의”가 개정판에서는 삭제되었으며, 1-2행 텍스트의 “헤어진 때가 마지막이었어”는 “함께이던 때였어”로 3행의 “꿈과 같았네”에서는 ‘과’가 ‘만’으로 바뀌었고, 시제의 오류였던 “았”이 삭제되어 현재 형으로 바로 잡혔을 뿐 아니라, 그 뒤에 “특히 이렇게 자네와 마주앉게 되고 보니 더욱”이라는 구절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이점 기록부는 텍스트 변형의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영웅시대』에서는 개정판에서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텍스트 상이도가 클 경우나 수정된 텍스트가 방대한 경우에는 다음처럼 수정 부분 전체를 옮겨 적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6행 박영구 ~ 13행 사실 ] 박영규를 말하는군. 그는 우리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흑색운동에 관여한 썸이 되네. 조선 무정부주의자총연맹(46년 경남 安義에서 결성)을 거쳐 독립노동당(최초의 국내아나키스트 정당) 까지 갔었으니까 아, 참 그때 언뜻 강현석을 본 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48년에야 불쑥 우리 쪽으로 넘어왔네. <남고 부패한 세계가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그것과 무관한 세계가 돌연 솟아오르도록 할 마술은 없다> (陳獨秀의 아나키즘 批評의 한귀절)는 걸 새삼 깨달았다는 고백이었네. 아마 자기 당(黨)에 느낀 환멸 때문이었던 것 같았네. 그리고 보니 자네하고도 비슷한 동기가 되겠군. 생각해 보게.

### 3.5. 주해서 작성

문학텍스트는 시대와 공간을 뛰어 넘어 지속된다. 『영웅시대』를 예로 들면 이 작품은 21세기 말에도, 22세기에도 읽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후대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들이 이해하기 힘든 지명, 인명, 역사적 사건, 전기적 사건, 수사학적 표현, 역사적 사실, 전문용어 등에 대한 주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때 주해서는 최초 텍스트와 독자 사이에 놓인 “시간적·문화적·정신적 간극을 극복하게 해주는 장치”<sup>12)</sup>임에 분명하지만,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서술에 한정해야 하며,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작품해석(Interpretation)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영웅시대』의 경우에도 6.25라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갖기 때문에 해설이 필요한 단어나 개념이 많다. 특히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유입되었던 1945년을 전후한 역사공간에 존재했던 단체나 인물 등에 대해서는 이 소설이 처음 발표되었던 1984년에도 이미 일반 독자들에게는 낯선 개념들이었다. 예를 들어 본 논문 19쪽에서 원전(본)의 예로 든 219쪽 텍스트만 보더

12) Bodo, Plachta, *Editionswissenschaft. Eine Einführung in Methode und Praxis der Edition neuerer Texte*, 2. ergänzte und aktualisierte Aufl., Stuttgart, 2006 (=UB 17603). p. 125.

라도 “조선 무정부주의자 총연맹”, “진독수”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석이 필요하다.

219쪽, 8행 <조선무정부주의자 총연맹>: 1924년 이회영, 이을규, 정화암 등의 무정부주의자(아나키스트) 들이 중국 북경에서 조직했던 독립운동 단체. 아나키즘에 입각하여 독립운동 단체들 간의 파벌주의를 지양하고, 총 결집할 것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프롤레타리아독재를 표방하는 공산주의의 불세비키공산혁명 이론은 비판했다.

219쪽 11행 진독수 (陳獨秀 천두슈/ 1879-1942) )중국의 사상가, 정치가, 베이징 문과대학장을 지낸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1920년 중국공산당을 창당한 주역 중 한 명이다. 『문화혁명론』등을 통해 혁명의 문화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보다는 농민의 조직화에 주력했던 모택동과 대립하다 1927년에 중국공산당 총서기직에서 밀려나고 1929년 당에서 추방되었다. 그 후에는 트로츠키주의자로 변신했으나, 중일전쟁 발발 이후 실의에 빠져 병사했다.

이외에도 『영웅시대』에는 동영의 집안과 관련해 유교적 전통과 관련된 전문용어 등이 많이 사용되며, 정인이 기독교로 귀의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관련 용어나 개념 등이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용어나 개념들은 대부분 후대의 독자들에게는 낯선 전문용어나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사·비평본 편집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주해서 작성이 요구된다.

#### 4. 결론

문학텍스트의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텍스트비평적 고찰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모든 텍스트 출간은 텍스트의 신뢰성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텍스트의 확립은 모든 문학연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 이유는 “본문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판[본]으로 문학작품을 읽고, 연구하고, 그것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처럼 부질없고 허황된 것”<sup>13)</sup>이며, 작품의 생성단계에 맞지 않는 텍

13) 이경식, 『분석서지학. 이론과 실제. 셰익스피어 서지학자들 이야기』, 서울



트에 기초해 작가를 연구하는 것 옷 단추를 잘 못 끼우는 것과 같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본 논문은 서로 상이한 두 판본 텍스트를 갖고 있는 이문열의 소설 『영웅시대』를 텍스트비평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텍스트 상이점 기록부’에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개정 민음사 판본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텍스트 변화들, 곧 『동영의 노트』 추가, 아나키스트 김철 및 커뮤니스트 안명례(나타샤)의 캐릭터 변화, 막판 서사의 수정 등이 모두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일관된 원칙 아래 이루어졌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판에서 이루어진 텍스트 수정의 기저에 깔려 있는 방향성과 원칙을 분석하는 것은 이 소설 뿐 아니라 1984년 여름 작가 이문열에게 발생한 사상적 변화, 1980년대라는 특수한 시공간의 영향, 더 나아가 텍스트 수정을 요구한 제 3의 요인 등 까지도 추적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고 흥미로운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이문열과 그의 문학, 또는 한국현대문학을 전공하는 문예학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서지학 또는 편집문헌학의 역할은 텍스트의 생성 및 변천에 대한 과학적(학문적)이고 중립적인 분석 자료를 해당 작가 전문 문예학자에게 제공하는 데에서 그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고규진, 「텍스트비평과 편집의 유형」, 『독일언어문학』, 48집(2010) 251-267쪽.
- 권유리아, 「이문열 소설과 이데올로기」, 국학자료원, 2009, 89쪽
- 이경식, 『분석서지학. 이론과 실제. 셰익스피어 서지학자들 이야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이승진, 「문학텍스트의 사적 - 비판적 편집. 브레히트의 시를 통해 살펴본 그 필요성과 방법론」,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제 4집(1997), 223-258쪽.
- 이승진, 「브레히트 신전집의 비판적 고찰」,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7집(1999) 54-84쪽.
- 정주아, 「이념적 진정성의 시대와 원죄의식의 내면 -1980년대 이문열 소설의 존재방식과 텍스트의 이중성」, 민족문학사연구, 54집(2014), 7-33쪽.
- 한형구, 「이문열의 『영웅시대』의 생성과 수용의 의미망」, 문학사상, 1989년 9월호, 114-121쪽.
- Bein, Thomas, Textkritik. Eine Einführung in Grundlagen germanistisch-mediävistischer Editionswissenschaft. Lehrbuch mit Übungsteil, 2., überarb. u. erw. Aufl, Frankfurt a. M u.a., 2011.
- Gutzen, Dieter u.a., Einführung in die neuere deutsche Literaturwissenschaft. 6., neugefasste Aufl. Berlin, 1976.
- Kafka, Franz, Schriften, Tagebücher, Briefe. Kritische Ausgabe in 15 Bänden, hrsg. v. Jürgen Born u.a.. Frankfurt a. M., 2. Aufl. 2002
- Plachta, Bodo, Editionswissenschaft. Eine Einführung in Methode und Praxis der Edition neuerer Texte, 2. ergänzte und aktualisierte Aufl, Stuttgart, 2006 (=UB 17603)
- Seidel, Gerhardl, Bertolt Brecht. Arbeitsweise und Edition. Stuttgart, 1977.

*Abstrakt*

## Textual Criticism of the Novel -The Era of Heros

Lee, Seung-jin(Wonkwang Univ.)

The textual criticism aims to provide the reader with a proven and reliable text. The textual criticism of the contemporary literature, in particular, attempts to show how the text evolved and developed, and to produce for researchers an accurate study on the disparities among different editions by comparing them.

Yi Mun-yeol's novel <The Era of Heros> has two versions obviously distinct from each other. It was serialized into eight parts in the quarterly magazine, *The World Literature*, from 1982 to 1984 and three months after the finalization of the series in October 1984, it was published in one volume by Minumsa Publishing Company.

However, this single-volume revised edition is not the same as the original serialized version. Actually, quite different. First, with the huge addition of <Dong- Yeong's Note>, which did not exist in the original version, the whole text was expanded into six chapters, amounting to 1,000 pages in total. Moreover, due to the inclusion of Dong-Yeong's Note, the speculativity that was already pervasive in the original version was intensified.

Besides, one significant alteration is the ending of the novel. In the original version An Natasha (Myeong-Rye) procures a boat for Dong-Yeong's escape from North Korea when he was faced with a political purge and this is how she cuts her own Gordian knot of the love-hate ambivalence and ideological confrontation all intertwined together as a way of terminating her long relationship with him. As

contrasted with this, the revised edition shows her reporting his escape to the coast guard after his departure, which disproves the innocence of her feelings for him.

With other discrepancies, these two versions of the "same" novel are "not identical" at all and it leaves us several questions simple but puzzling. Which version are we supposed to read? and which text are the researchers supposed to analyze? and in case Yi Mun-Yeol's complete edition is to be published, which version should be included as the authentic one of <The Era of Heros>? and should the reader be informed of the selection? and how?

As a response to these questions and employing a text-critical approach, this article attempts to put together a historical-critical edition of the novel. More specifically, with the first version as the base-edition, a textual comparison will be conducted between the first version and its revised edition, while producing a 'discrepancy record apparatus'.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readers and the researchers as well with not only the text itself of <The Era of Heros> but also a 'reliable' and 'academic' text enriched and reinforced with an in-depth research on the genesis, evolu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given text.

All the previous studies conducted on <The Era of Heros> use the single-volume revised edition by Minumsa Publishing Company as the text for research.

■ Key words: Yi Mun-yeol, The Era of Heros, historical-critical edition, Apparatus, Ideologie

접수일자: 2016. 6. 30 심사일자: 2016. 7. 15 게재결정: 2016. 8. 2